

사커 브레이크 내달 6일 크로아티아 평가전 나설 최강희호 24명, Q & A로 분석해보니...

# 1 박주영·이동국 최전방 재회 '공존의 해법 찾기'

- 2 상대역습 대비...수비수 이정수 골
- 3 상무 이근호 등 몸상태 불확실 제외
- 4 최강희감독 "남은 예선 이 멤버로"

6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0위 크로아티아와 평가전에 나설 24명의 대표팀 명단이 발표했다. 최강희 감독은 21일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 기성용(스완지시티) 이창용(불턴) 등 유럽파 7명을 포함해 일본과 중동에서 뛰는 선수들을 대거 발탁했다. 평가전을 통해 최상의 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해외파를 집중 점검하고 3월부터 열리는 2014브라질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4경기를 준비할 계획이다. Q&A 형식으로 최강희호를 살펴봤다.

**Q : 이동국(전북 현대)과 박주영(셀타 비고)이 공존할 수 있을까?**  
**A :** 이번 평가전은 브라질월드컵 최종예선을 앞둔 사실상의 마지막 모의고사다. 둘의 공존은 대표팀에서 계속 제기된 과제다. 둘은 작년 2차례 호흡을 맞췄다. 2월말 쿠웨이트와 3차 예선에서는 투톱을 이뤄 풀타임 출전했고, 9월 우즈베키스탄전에서 20여분을 함께 뛰었다. 그러나 둘의 호흡은 이번이 실패했다. 손발이 맞지 않고 어색한 모습이었다. 둘 모두 최전방 공격수로 원톱에 놓였을 때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 하지만 최 감독은 공격력 극대화를 위해 둘의 호흡을 포기하지 않았다. 크로아티아전도 공존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둘 전망이다. 최 감독은 "상대는 수비를 끌어내리고 역습 위주로 나설

것이다. 우리는 초반에 득점을 해야만 하고 강력한 공격 조합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Q : 배태량 수비수 이정수(알 사드) 재발탁 배경은?**  
**A :** 이정수는 작년 9월 우즈베크 전 이후 4개월여 만에 재출전했다. 우즈베크전 당시 집중력이 크게 떨어지며 세트피스에서 두 골을 헌납했다. 그러나 최 감독은 최종예선 4경기를 남기고 다시 배태량을 중용했다. 최 감독은 "상대가 수비 위주의 경기에서 역습을 수차례 시도할 것이다. 단판 승부인 최종예선은 경험 있는 선수들이 필요하다. 이번 평가전에서 수비 라인을 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수는 스피드와 경기 운영 능력이 뛰어나다.  
**Q : 이근호·오범석 등 국내파 제외 이유는?**  
**A :** 이근호는 단연 최강희호의 황태자다. 작년 최종예선과 평가전 8경기 모두 선발로 나서 5골을 터뜨렸다. 측면은 물론 중앙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서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이근호는 지난달 말 군(상무)에 입대해 훈련 중이다. 몸 상태를 자신할 수 없다. 한 팀포 쉬어가기로 했다. 오범석과 김창수 등도 같은 이유로 제외됐다. 최 감독은 "이근호는 1월28일 퇴소한다. 몸 상태를 봤을 때 선발할 수 없었다. 3월26일 첫 경기까지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있는 만큼 충분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Q : 이번 멤버 남은 최종예선 그대로일까?**  
**A :** 최 감독은 "6월 최종예선 마지막 경기까지 염두에 두고 선발했다. 가능한 이 멤버로 최종예선 4경기를 치르고 싶다"고 밝혔다. 최 감독은 당초 경기에 나설 수 있

● 최강희호 명단 (2월6일 크로아티아전)	
포지션	선수(소속)
GK	김영광(울산 현대)
	정성룡(수원 삼성)
	곽태휘(알 사드)
	김기희(알 사일리아)
	신광훈(포항 스틸러스)
DF	윤석영(전남 드래곤즈)
	이정수(알 사드)
	장현수(FC도쿄)
	정인환(전북 현대)
	최재수(수원 삼성)
	최철순(상주상무)
	황석호(히로시마)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
	기성용(스완지시티)
	김보경(카디프시티)
MF	김재성(상주상무)
	손흥민(함부르크)
	신형민(알 자지라)
	이승기(전북 현대)
	이창용(불턴)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
	김신욱(울산 현대)
FW	박주영(셀타 비고)
	이동국(전북 현대)

는 최적의 인원을 선발하려고 했다. 작년 11월 호주와 평가전 당시 18명을 뽑았던 전례가 있다. 불박이를 제외한 신형민(알 자지라), 장현수(FC도쿄), 최재수(수원), 최철순(상무) 등은 당장 평가전에서 출전하기 보다는 테스트 성격이 강하다. 최 감독은 이전부터 K리그를 중용하며 백업 선수들의 기량을 점검해 왔다.  
 박상준 기자 spark47@donga.com 트위터 @sangjun47



박주영(왼쪽)과 이동국이 크로아티아와의 평가전에서 공격의 선봉에 선다. 최강희 감독은 두 선수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 공격력의 극대화를 노리겠다는 복안이다. 스포츠동아DB

## A대표팀 런던원정 행복했던 추억

코트디부아르·그리스에 짜릿한 승리 강호와 3차례 평가전서 2승 1패 성과  
 한국대표팀은 런던과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런던에서 3차례 평가전을 치렀는데 전적은 2승 1패다.  
 가장 최근 열린 경기는 2010년 3월 코트디부아르와 평가전이었다. 첼시에서 활약

하고 있는 디디에 드로그바(35)를 비롯해 에마누엘 에부에(30) 등이 포진해 있었다. 전력 면에서 한국의 열세가 예상됐다. 그러나 한국은 전반 4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리며 기세 좋게 앞서 갔다. 주인공은 이동국. 당시 대표팀에서 주전 임지를 굳히지 못했던 이동국은 기성용의 패스를 받아 환상적인 발리슛을 뽑았다. 선제 결승골. 두 팔을

벌린 채 기쁨을 만끽했던 이동국은 2010년 아공월드컵 최종 명단에 발탁되며 2002년과 2006년 엔트리 탈락의 슬픔을 날려버렸다. 2-0의 짜릿한 승리. 2009년 11월에는 동유럽의 강호 세르비아와 맞붙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하는 박지성과 비디치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박지성과 이창용의 활약에도 비디치의 벽에 부딪히며 0-1로 패했다. 2007년에는 후반 33분 이천수의 프리킥 골에 힘입어 그리스를 1-0으로 제압했다. 박상준 기자

## 윤빛가람 브라가 이적설의 양면성

포르투갈 명문팀 불구 '플레이어스 펀드' 개인 재이적엔 자금 회수 맞물려 곤경에 처할 수도

올 겨울 이적시장에 포르투갈 명문 SC브라가가 유독 많이 등장한다. 브라가가 이적료 20억원 안팎에 윤빛가람(23·사진·성남)을 원한다는 보도가 계속 나온다. 그런데 의아한 점은 끊겼다. 에이전트들은 "유럽도 불행이라 팀 검증된 한국 선수에 20억 이적료를 줄 구단은 거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그런데 브라가는 무슨 돈이 있는 걸까. 이유가 있었다. 윤빛가람 이적에 이라바 '플레이어스 펀드(players fund)'가 관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적료 투자해 자본 갖는 방식

플레이어스 펀드는 국내에는 생소하지만 브라질, 유럽에서는 통용되고 있다. 맨체스터 시티 카탈루냐 테베스가 대표적인 예. 일종의 사모펀드인 MSI는 2004년 이적료 370억원을 내고 테베스 소유권을 확보했다. 이 소유권은 2007년 할렘 스프링스로 넘어갔다. 이 회사는 2009년 이를 750억원에 맨체스터 시티로 넘기며 400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국내에서는 2002한일월드컵 직후 일본 PM이 안정환에게 30억원을 투자해 페루자, 부산과 얽혀 있는 금전관계를 정리해준 적이 있다. 김경중(강)도 작년 초 프랑스에 진출할 때 일부 금액을 투자한 펀드가 일정 지분을 갖고 있다. 브라가와 플레이어스 펀드는 원래 윤빛가람과 이승기(전북)를 함께 원했다. 당시 이승기에게 제시된 이적료는 약 20억원, 연봉은 약 8억원이었다. 윤빛가람도 비슷한 수준에서 협상이 진행 중일 것으로 보인다.

### ●펀드 이적의 빛과 그림자

이런 방식은 몇 가지 위험부담이 따른다. 이 펀드가 윤빛가람 이적료를 전액 내는지, 일부만 부담해 지분을 가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만은 확실하다. 펀드는 향후 재 이적 시 최대한 많은 돈을 회수하려 할 게 당연하다. 이 때 선수의 지분은 무시되고 돈만 확보될 수 있는 팀으로 이적이 추진될 염려가 있다. 더구나 윤빛가람은 큰 클럽인 군 문 제로 해결 못했다. 윤빛가람이 브라가에서 가치를 높여 좋은 조건에 이적하면 다행이지만 반대의 경우 큰 곤경에 처할 수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프리미어리그는 제 3자의 선수 소유를 아예 금지하고 있다. 단, 국제축구연맹(FIFA)은 인정한다. 윤빛가람과 비슷한 제의를 받은 이승기는 이 같은 위험요소 가 없다는 이유로 브라가 제안을 거절하고 전북 현대를 택했다. 반면, 윤빛가람 이적에 추진 중인 관계자는 "출전 기회 보장, 선수권리 보호 등의 방어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부에서 걱정하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윤태식 기자 sportic@donga.com 트위터@Bergkamp08

## 전남·경남·부산 태국으로 전훈 왜?

기온·비용·연습장 등 최적의 조건

프로축구 구단들은 새 시즌을 앞두고 해외 전훈을 통해 분위기를 전환한다. 파스한 지역에서 몸을 만들고, 꾸준한 연습게임으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린다.  
 여기에도 트렌드가 있다. 시기별로 선호 지역이 달라지는 추세다. 한 때 유럽 남부와 남미, 호주 등지가 각광 받았지만 최근 일본과 중국이 대세였다. 유럽을 찾으면 터키 및 사이프러스 등이 인기였다.  
 올해는 또 다른 분위기다. 체력 훈련이 집중된 1차 캠프는 팜(미

국령)이 인기였고, 실전 위주의 2차 캠프는 동남아시아, 그 중 태국이 많아졌다. 최근에는 전남, 부산, 경남 등 3개 팀들이 태국으로 향했다. 전남과 경남은 방콕에 있고, 부산은 춘부리로 간다.  
 물론 이유가 있다. 비용 대비 효과 때문. 일본과 중국은 물가 폭등으로 매력이 많이 사라졌다. 기후도 국내와 큰 차이가 없다. 연습장대를 구하는 일도 수월하지 않다. 그런데 태국은 다르다. 1~2월은 평균 기온이 섭씨 27도 정도로 아주 덥지 않고 낮은 물가로 훈련장과 숙소, 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다. 여기에 실력 좋은 현지 클럽들과 일본 J리그 팀들이 중심이 된 연습 상대들이 많다. 한 구단 관계자는 "낮실지만 동남아도 나쁘지 않다. 세계적 불경기에 비용도 줄고, 훈련 환경도 좋다"고 설명했다. 남정현 기자

## 구자철+지동원 콤비로 부활하다

2011 아시안컵 8골 합작 최고의 조합 뒤셀도르프전 3호골·풀타임 V 견인

독일 분데스리가 아우크스부르크에서 한술밥을 먹는 지동원(22)과 구자철(24)이 팀 승리를 합작했다. 둘은 21일(한국시간) 독일 뒤셀도르프의 에스프리아레나에서 열린 뒤셀도르프와 정규리그 18라운드 원정에서 짜릿한 3-2 승리를 이끌었다. 중앙 미드필더로 나선 구자철은 시즌 3호골을 넣었고, 최전방에 포진한 지동원은 위협적인 몸놀림으로 상대를 괴롭혔다. 구자철은 후반 추가시간에 교체아웃 됐고, 지동원은 90분 풀타임을 소화했다.

### ●2011년 그 때처럼

아우크스부르크가 1-0으로 앞선 전반 종료 직전, 상대 문전 왼쪽에서 토비아스 베르너가 띄운 크로스를 거의 각도가 없는 골대 오른쪽에서 잡은 구자철이 반대편 골대를 향해 오른쪽 슛을 했다. 공은 왼쪽 골대를 맞고 득점. 작년 11월28일 슈투트가르트 원정에서 골 맛을 본 뒤 두 달여 만에 느낀 득점의 환희였다.  
 겨울 이적시장을 통해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에서 아우크스부르크로 옮긴 지동원 역시 맹위를 떨쳤다. 전반 37분 구자철의 패스를 잡아 상대 아크 왼쪽에서 강한 원발 슛을 날렸고, 후반에도 적극적인 헤딩슛을 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 성공적인 데뷔 무대였다.  
 유일한 아쉬움은 뒤셀도르프 소속의 차두리가 잠시 팀을 떠나 있어 3명의 코리안 데비가 성사되지 않은 점. 그러나 치열한 강등권 사투를 벌이는 아우크스부르크는 귀한 승점 3을 추가해 하위권 탈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사실 구자철-지동원 콤비의 효과는 오래 전에 드러났다. 2011카타르 아시안컵에서 한국이 3위에 올랐을 때 구

## Mölders schenkt Augsburg ne



구자철이 21일 뒤셀도르프와의 원정 경기에서 팀의 두 번째 골이자, 시즌 3호 골을 성공시킨 뒤 팀 동료와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키커 홈페이지 캡처

자철은 득점왕(5골)에 올랐고, 지동원도 3골로 유럽 진출의 계기를 마련했다. 당시 지동원이 원 톱, 구자철이 그 뒤를 받치며 참격공함 플레이를 선보였다. 또 2012런던올림픽에서도 함께 하며 동메달 신화를 일궜다.  
 이후 구자철은 부상으로, 지동원은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다시 몸치며 상황이 반전됐다.  
 2014브라질월드컵 본선 진입을 꿈꾸는 최강희호가 2월 초 크로아티아 평가전을 앞두고 둘을 재소집한 건 당연지사. 대표팀과 소속 팀, 그리고 스스로의 부활을 위해 그라운드 단짠은 올해 기본 좋은 출발을 했다.  
 남정현 기자\_yoshike3@donga.com 트위터@yoshike3